Market Index / 3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 3247.43 +23.20		▲ 990.19 +9.09		▲ 68.83 +1.11		1USD		1133.49	1094.51	1EUR	1385.26	1331.22
						100￥		1032.75	997.23	1CNY	183.08	165.66

마늘값 상승에 직거래장터 진풍경 연출

시중가격 상승 여파 판매 1시간여만에 7t 소진
1인당 20kg 한정에도 일찍 동나 다수 발길돌려

농협제주지역본부가 마늘 주산지 지역농협과 함께 3~4일 운영하는 햇마늘 직거래장터에서는 예년과 사뭇 다른 진풍경이 빚어졌다. 올해 제주산 마늘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감소하고 작황 부진까지 겹치며 소비자가격이 오르고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시중에서 피마늘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소비자들이 직거래장터로 몰리면서다.

3일 농협지역본부 야외주차장에 마련한 직거래장터에는 오전 일찍부터 마늘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려들어 긴 줄이 만들어졌다. 오전 10시부터 판매가 예고됐지만 일부 고객들은 8시쯤부터 서둘러 장터를 찾았다.

농협측은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마늘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구입량을 20kg으로 한정했지만 판매 시작 1시간여만인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준비한 7t이 모두 소진됐다. 당초 오후 4시까지 판매를 예고했던 터라 직거래장터 천막에는 마늘을 구입하려는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물량 소진 안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처럼 마늘 직거래장터에 시민들이 몰린 것은 시중보다 20~30%가량 가격이 저렴해서다. 10kg에 4만3000원, 20kg은 8만50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최근 전통시장 판매가(20kg 12만원, 10kg 6만원)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또 피마늘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도내 유통매장에서는 구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년 마늘 직거래장터를 이용했다는 김모(제주시 삼도1동)씨는 "올해 마늘값이 평년보다 오르긴 했지만 오전 일찍부터 많은 이들이 직거래장터를 찾아 줄지어선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30분 이상을 기다려 20kg을 구입했는데, 마늘이 동나 그냥 돌아간 사람들도 적잖았다"고 말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마늘 직거래장터를 해마다 운영했는데 올해처럼 물량이 일찍 소진된 경우는 드물다"며 "첫날 500명 정도가 마늘을 구입했고, 그냥 돌아간 이들도 여럿이어서 4일에도 7t 물량이 오전중에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산 도내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예상량은 각각 1795ha(잎마늘 195ha 포함), 2만4107t으로 평년 대비 각각 15%, 27.4% 줄어든 것으로 관측됐다. 전국 생산예상량도 평년 대비 2.2~6.5% 줄어든 30만9000~32만3000t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량 감소는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동향을 보면 3일 제주동문시장에서 깐마늘 상품 1kg은 9330원으로 평년(8773원) 대비 6.3%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한달 전 가격(9132원)보다도 소폭 오름세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농협제주지역본부와 마늘 주산지 농협이 3일 지역본부 야외주차장에서 진행한 마늘 직거래장터에 고객들이 몰리며 판매시작 1시간 남짓만에 준비한 마늘 7t이 모두 소진됐다. 강희만기자

신세계사이먼, 아울렛 인재육성 본격

관광대와 산학협력 협약식
이달 말부터 '도민 우선 채용'

제주신화월드 내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신세계사이먼이 제주관광대학교와 손잡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신세계사이먼과 제주관광대학교는 3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샵마스터 교육과정의 공동개설 및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진

체결식에는 신세계사이먼 조창현 대표, 제주관광대학교 김성규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샵마스터 교육 과정'을 공동 개설해 제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신세계사이먼은 '샵마스터 교육과정'과 '채용박람회'를 통해 인력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샵마스터 교육과정은 오는 8월, 1차로 제주관광대학교 졸업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 등의 기초 이론 교육과 함께 샵매니저 특강 및 현장 실습 등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우선 면접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세계사이먼은 과정에 필요한 운영비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세계사이먼 조창현 대표는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을 위한 샵마스터 교육과정, 채용박람회 등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 및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주관광대학교 김성규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최고의 유통 및 서비스 기업과 산학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산학 연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사이먼은 오는 7월 여름 성수기에 맞춰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진행해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감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 감소

올해 6152ha… 작년보다 14%↓

온주밀감과 만감류(4개 품종)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따르면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감귤류 농작물재해보험 기간에 6152ha(계약건수 9915건)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총 재배면적(2만90ha) 중 4566ha가 보험에 가입하며 22.7%의 가입률에서 2020년에는 35.6%(7153ha)로 상승했지만 올해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면적이 작년보다 14.0% 줄었다.

감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온주밀감(노지+하우스)과 시설재배 만감류(천혜향·레드향·한라봉·황금향)다. 제주시 지역에서 노지온주 3300㎡ 기준 보험가입금액 14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농가 부담은 총 보험료의 15%인 5만6000원대다. 한라봉하우스는 3300㎡, 가입금액 4000만원 기준 12만원대를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보험료 85%는 국비(50%)와 도비로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감귤 피해농가에 지급한 보험금은 2019년 149억원, 2020년 92억원이다.

감귤은 도내 52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중 가입률이 낮은 품목으로 꼽힌다. 월동무, 당근, 원예시설의 지난해 재배면적 대비 보험가입률은 각각 79.4%, 82.3%, 83.8%에 이른다. 가을감자 70.2%, 메밀도 67.4%로 보험가입률이 절반이 넘는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해 피해를 입지 않는 농가에서는 다음해에는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자연재해 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하려면 재해보험에 가입해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양돈농협 직거래장터 참여

제주양돈농협은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가 주관하고 제주시 후원으로 오는 5일 개장하는 '제주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제주산 돼지고기 '제주도니'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일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669-6에서 열린다. 돼지고기를 비롯해 초당옥수수, 오이, 미숫가루, 블루베리, 토마토 등 제주산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문미숙기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

기업귀책 사유 중도해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이하 중진공)는 근로자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근로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규정 개정이 완료된 4월부터 재가입을 허용중이며, 제도가 개선된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의 취지는 성실하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 귀책으로 공제가입이 해지되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 조치로 볼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원(월12만원), 사업주가 1200만원(월2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5년)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의 목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만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가입 가능하다.

공제가입 및 재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sbcplan.or.kr)이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 및 가입 가능하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